

# 장애인 '자립 보장' 5개년 계획 추진

## 市, 주거형 주택 80호 공급 등 8개 분야 서비스 강화 시범사업 연계 시너지 높여 광주형 시스템 마련 기대

광주시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2차(2022-2026년)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제2차 자립생활 보장 5개년 사업을 토대로 시범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주형 자립생활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부터 추진해온 1차 자립지원 계획 사업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 882명의 입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를 실시해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사업계획설명회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제2차 계획 수립에 힘을 쏟았다.

제2차 계획은 탈시설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 결과 자립을 희망한 210명 중 80명의 자립 지원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8개 분야 18개 세부과제로 ▲안정적인 주거 지원(자립 주거형 주택·제휴형) ▲지역사회 활동체계 구축(개인별자립지원계획·자립지원인력 역량교육·활동지원서비스·중단연구)

▲평생학습지원·문화 활동 지원 ▲건강권 보장(장애인 건강주치의 연계·건강관리 지원) ▲경제활동(직업활동 지원·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지원·자립장애인 경제교육 지원) ▲장애아동 자립 지원(자립생활 욕구조사·장애아동 전담인력 지원·후견인 지원) ▲탈시설 장애인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사업계획설명회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제2차 계획 수립과 구축 등이다.

2차 사업의 특징은 자립 주거형 주택 8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시공사 협약을 마련해 주거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시설장애인 정착금 지원을 최대 1천400만 원까지 연차별 확대, 탈시설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등을 지원한다.

또 아동양육시설 내 장애아동 자립 지원을 위해 시 아동청소년과 협업체 장애아동 전담인력 배치, 후견인 지원 등으로 장애아동 자립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따른 전반적인 제2차 자립생활 보장 사업은 광주장애인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지역사회 자립 시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해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지역 내 장애인 복지기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시설 장애인들의 권리 중심 2차 자립생활 보장 계획이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고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사회 장애인들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범사업도 2차 자립생활 사업과 연계해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돼 2024년까지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선강기자

# 8월 첫주에만 광주·전남 4만여명 확진

## 일주일째 6~7천명대 감염...이달들어 13명 사망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에서 8월 첫주에만 4만여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7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1만9천272명, 전남 2만691명 등 총 3만9천963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광주 1천980명, 전남 1천814명 등 총 3천794명으로 일주일 동안 4만여명이 넘게 감염된 셈이다.

8월 일차 별 확진자는 ▲1일 5천780명(광주 2천649명, 전남 3천131명) ▲2일 7천188명(광주 3천553명, 전남 3천635명) ▲3일 6천575명(광주 3천416명, 전남 3천159명) ▲4일 7천281명(광주 3천394명, 전남 3천887명) ▲5일 6천436명(광주 2천845명, 전남 3천591명) ▲6일 6천703명

(광주 3천415명, 전남 3천288명) 등이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늘었다. 8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광주 5명(누적 581명), 전남 8명(누적 519명)이다.

전국적으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0만5천507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는 것은 지난 2일부터 6일째다. 또한 일요일 발표(토요일 집계분) 기준으로 10만명을 넘긴 것은 4월 10일(16만4천453명) 이후 17주 만에 처음이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재유행 정점이 이르러 이달 1~2주 사이, 늦어도 이달 중에 형성돼 이후 유행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복선강기자

# 尹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24%...취임 후 최저

## '부정' 66% 달해...전주비 '긍정' 4%p ↓ '부정' 4%p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추가로 떨어지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5일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4%p 하락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꺾일 조사 기준으로 처음 민주당에 역전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로 각각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6월 둘째 주 53%에서 한 달 넘게 하락세를 보여왔다. 지난주(7월 26~28일) 28%를 기록해 취임 후 처음으로 30% 선 아래로 내려온 이후 일주일만인 이번 주 들어 4%p가 추가로 빠진 것이다. 이번 주에 기록한 24%는 윤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48.6%)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6월 둘째 주 이후 30%대 초반에서 이번 주 66%까지 지속적으로 늘었다. 지난주보다는 4%p 오른 셈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에서는 긍정 평가가 52%로 부정 평가(39%)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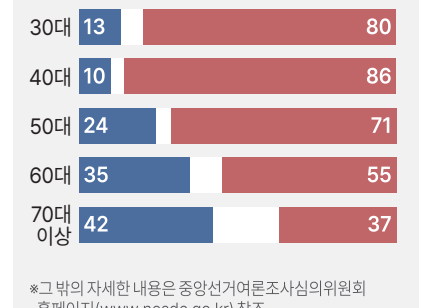
보수층(긍정 44%, 부정 48%)과 70대 이상(긍정 42%, 부정 37%)의 응답자는 긍정·부정 평가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661명)는 그 이유로 인사(23%), 경찰·자립 부족·무능함(10%),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7%) 등을 꼽았고, '전반적으로 잘못된

다'는 응답 비율은 6%였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과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음'도 각각 5%로 집계됐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4%, 더불어민주당이 39%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주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2%p 내렸고, 민주당 지지율은 3%p 올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1.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남뉴스



## ▶1면 '尹정부 첫 예산...'서 계속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김완섭 예산실장을 비롯한 5명의 예산심의관과 간담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규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또 지난달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면담,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예산정책협의회, 18일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내년 국고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전남도도가 예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계획 반영 ▲예타 조기 통과 및 정부예산안 반영(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우주과학 박사체 테마파크 ▲혁신공항 건설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역사문화권 종합 정비 ▲김 산업진흥구역 지정·지원 ▲광주·전남 첨단 의료복합단지 ▲국가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남해안권 탄소소재첨단 구축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국립 갯벌습지정원 ▲국립 남도음식진흥원 설립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기초가 긴축 재정으로 바뀐 만큼 예산 확보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핵심 현안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정부예산안은 기재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쓰레기 줄이기 도전 100일 '쓰레기 줄이기 도전 100일! 주민생활 실험단' 발대식이 지난 5일 광주 동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짐을 하고 있다. <광주 동구 제공>

# '만5세 입학' 이어 '외고 폐지'도 줄속 논란

## 학부모 반발 격화...교육부 "여러 방안 검토 중" 해명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외국어고등학교(외고)를 비롯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외고를 폐지하거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힌 뒤 '외고 폐지' 방침이 어떤 과정을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것인지 의아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시

각에서 이들 학교를 2025년 3월 1일 일 반고로 일괄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담아 추진해왔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폐지 방침을 뒤집고 이들 고교를 존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문제는 박 부총리가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자사고와 달리 외고의 경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불쑥 시사했다는 점이다. 이어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최성부 교육부 대변인은 "외고의 경우 미래사회에 부합하

지 않는 측면이 있어 폐지 또는 외국어교과 특성화학교 등으로 전환을 검토한다"며 폐지 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

예산처 못한 발표에 당장 전국의 외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반발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 발 물러섰다. 다만 연말까지 외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역시 박 부총리의 성급한 언급이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남뉴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시리빙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한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담**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인, 경력사원 영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문 상담<

집단지회의 법원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메인상권 빌딩급매**

○ 중심상업지역 역세권 코너 유동인구 엄청

○ 대지 810㎡ 9층건물

○ 급매68억(보3억1,000월3,600)부가세별도

**\*\*\* 주차빵빵, 월세빵빵, 월세는 지정일자에 통장바로 입금됩니다 돈 벌어주는 귀한 빌딩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내대지 야생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인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인크류
- 복사용지
- 팩사용지
- 판매
- 입대
- A/S

**T.375-588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회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